

# ‘달님과 책의 아름다운 만남’

## 연천 백의초등학교, 달빛 도서실 운영

백의초등학교(교장 김규식)는 올 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가족과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빛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달빛 도서실 운영은 2006년도부터 2학년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달빛 도서실에는 평균 10명 이상의 학부모와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백의초등학교는 한수 이북 최전방에 위치한 농촌 소규모 학교로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55%) 軍子녀로 학부모의 교육적인 열의와 관심이 높고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에 학교 도서실을 디지털화된 정보자료실로 리모델링하여 매년 다량의 질 좋은 장서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현재 총 7천489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대여하고 있다.

또한 기적의 아침 10분 파도(FADO: Favorite books, All together, Daily, Only reading)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독후활동 대회(동화속 주인공 되어보기, 깜짝 독서퀴즈, 책속 보물찾기 등) 운영, 방학 중 느티나무 밑에서 독서학교, 백의의 수요 영화제 등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정민 교사는 “학교 도서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질 좋은 도서를 많이 확보한 결과 1일 대출 인원이 2004년 25%에서 2007년 4월 현재 63%로 증가하였으며 1일 도서실 이용자는 4월 현재 평균 85%에 이른다. 달빛 독서와 백의영화제가 호응이 좋아 2학기에는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식 교장은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해도 길어져서 자녀와 함께 책으로 더욱 따뜻한 저녁시간을 만



들어 보시라고 학부모들에게 달빛 도서실 초청장을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노경하 어린이는(6학년) “작년부터 달빛 도서실에 참가해 왔는데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집에 있으면 저녁 시간이 대충 지나가버리는데 학교에서 이런 도서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양주시 High - Up 인사관리계획 발표

양주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적격 공무원에게는 정신적 재무장의 기회를 부여 하도록 High - Up 인사관리계획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High-Up 인사 관리계획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달린 양주’ 구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발탁 승진과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일 하지 않거나 다른 직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등 시 조직과 함께 하기 어려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사 조치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쟁력 있는 양주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이다

High-Up 인사 관리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실점가점 부여, 특별승급, 특

별승진 등 우수공무원 우대예외를 두고 업무추진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 직무재교육 등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게 된다.

업무추진 부적격자의 선발은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업무추진 능력이 극히 부진한 자, 부도덕한 사생활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부적격자를 선정

우선 5월20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1차 선발한 후 청렴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관리방법은 1단계로 보직을 미 부여하고 경무부서(6개월) 및 시정지원단(3개월) 근무와 함께 특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단계는 1단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직위해제하여 특별연구과제 수행 및 능력회복

을 위한 교육·훈련(3개월)을 받게 된다.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등 결국 시 조직과 함께할 수 없을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3개월) 경과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3단계인 직권면직 조치할 계획이다.

6월1일부터 가정 ‘시정 지원단’ 운영하고 근무실적과 연구과제를 2차례 평가하여 2단계인 직권면직 처리하게 된다.(2008년 4월 중)

시정담당부서 관계자는 본 계획은 매우 철저한 사항이므로 직원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드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회 편견 없는 사회 함께 하는 화합의 장

## 양주시,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개최

양주시가 사회 편견이 없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제27회 장애인 날 행사를 지난 4월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춘빈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홍범표 시의회부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장애인연합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들을 위로? 격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 모두의 이해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는 1부 식전행사, 2부 축하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1부 기념식은 연합회장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와 유공자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장학금 전달 등이 있었으며, 2부 축하 공연은 참여단체의 정기지랑, 초대가

수 등이 출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마음이 되는 즐거운 축제 의 장이 되었다.

임춘빈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민을 향한 인식 개선 운동을 꾸준히 전개 사회의 구성원으로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확보에 우선순을 두어 장애인에 해를 향한 정책을 펼쳤다고 말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발 맞추어 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 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날 1부 기념식은 연합회장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와 유공자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장학금 전달 등이 있었으며, 2부 축하 공연은 참여단체의 정기지랑, 초대가

# 육군 65사단 국토탈결 행사 실시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65사단은 지난 20일 주둔지 및 양주시 회천동 일대에서 대대적인 국토탈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단은 1,000여명의 장병들을 투입하여 양주시 청, 회천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부대 주둔지 근처와 어하고 배 및 회안천, 회천 4동 지역을 돌며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다.

오전 내내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장병들은 아침부터 내리는 부슬비에도 불구하고 순찰활동 지역을 이곳저곳 순찰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와 함께 사격장과 부대인근 도로 등지에 투기·방치된 폐가구 및 폐타이어를 말끔히 정리하는 등 지역 환경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사단이 이날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100! 규격봉투 150개 분량으로, 양주시 환경과와 협조하여 전량 처리하였다.

부대는 앞으로도 영의 사격장 및 훈련장 주변 민간인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 간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 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노인대학 입학식

## 양주시 7개 생활권역 노인회

양주시는 지난 20일 임춘빈 양주시장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2000년 개교한 이후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을 증대코자 노인대학 7개소와 노래교실 4개소를 현재까지 전 지역 생활권 단위로 확대 운영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대학은 매년 총 25회 50시간의 학과 과정을 이수한 700여명의 졸업생과 200여명의 노래교실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식에는 정규대학과 같이 학사모를 쓰고 식을 거행한다.

임춘빈 양주시장은 각 노인대학 입학식의 축사를 통해 “사회에 변화에 적응하고 청장년층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인대학에 나오신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젊음을 영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20일 임춘빈 양주시장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2000년 개교한 이후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을 증대코자 노인대학 7개소와 노래교실 4개소를 현재까지 전 지역 생활권 단위로 확대 운영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대학은 매년 총 25회 50시간의 학과 과정을 이수한 700여명의 졸업생과 200여명의 노래교실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식에는 정규대학과 같이 학사모를 쓰고 식을 거행한다.

임춘빈 양주시장은 각 노인대학 입학식의 축사를 통해 “사회에 변화에 적응하고 청장년층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인대학에 나오신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젊음을 영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편, 양주시는 택지개발 등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난 회천지역에 노인대학 1~2개소를 2008년부터 개설하여 희망자 전원이 노인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연천교육청 학부모와 교육감과의 행복한 만남

4월 17일(화) 연천교육청(교육감 양기석)에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연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가 있었다. 교육감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교육감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학부모와 행복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교육정책 동향상EXPO2007 홍보자료를 보고, 이어서 경기교육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였다.

교육감은 연천은 아름답고 그리운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고장이라고 운을 띄우고 학부모들에게 경기교육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멀리 연천까지 찾아왔다고 하였다. 교육은 百年之大計이지만 적어도 30년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생들이 30년 후에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학교가 키워줘야 하며, 그 능력은 한마디로 ‘창의력’, 즉 자기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를 경기교육가족이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 주도적 학습 여건을 만들어주고

4월 17일(화) 연천교육청(교육감 양기석)에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연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가 있었다. 교육감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교육감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학부모와 행복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교육정책 동향상EXPO2007 홍보자료를 보고, 이어서 경기교육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였다.

교육감은 연천은 아름답고 그리운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고장이라고 운을 띄우고 학부모들에게 경기교육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멀리 연천까지 찾아왔다고 하였다. 교육은 百年之大計이지만 적어도 30년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생들이 30년 후에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학교가 키워줘야 하며, 그 능력은 한마디로 ‘창의력’, 즉 자기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를 경기교육가족이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 주도적 학습 여건을 만들어주고

10년 후에 도래할 지구촌사회에서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학부모들에게 힘을 주어 말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학부모 현영숙씨는 “경기도교육청정보자료와 교육감님의 경기교육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경기교육에 대한 희망과 감동을 느꼈다.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을 짚어주며 교육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역설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지역 환경정화 위해 軍도 적극나서”

## 육군 26사단, 민·관·군 합동 ‘새봄맞이 국토탈결 행사’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26사단은 20일 민·관·군 합동으로 ‘국토탈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국토탈결 행사에는 26사단 장병 1,000여명을 비롯하여 양주시청, 양주 녹색환경연합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내 환경정화를 위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1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백색을 일대, 신탄천, 광백저수지 등 손길 닿지 않는 곳과 사람 이동이 많은 지

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무분분하게 버려진 각종 오물과 폐비닐, 빈 병 등 5톤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26사단 장병들은 ‘지역환경 지킴이’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은 앞으로도 매일 정기적인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환

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양주시 민원실 근무 문경미 공무원 제26기계화 보병사단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미소천사가 있어 양주시 민원실은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이 넘쳐나네.

양주시청 민원실에서 호적신고 및 호적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문경미(30, 행정9급)직원이 4월13일 제26기계화보병사단(소장 배득식)으로부터 “전사 및 순직 재 분류자 유가족

찾기’ 사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한 보답으로 감사장과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받았다.

문경미 공무원은 2006년8월에 신규발령받아 근무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육군이 순직으로 분류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아 보훈혜택과 명예를 심어주기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유가족을 찾아 주었음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소재한 유가족까지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주소지나 본직지를 관할하는 행정 관서를 안내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타의 귀감이 된 위 직원은 평소에도 항상 밝은 미소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응대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는 등 주위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승의전 춘계 대제 거행

## 개성 왕씨 중앙총친회

개성왕씨 중앙총친회(회장 왕영은)는 19일 승의전에서 종친회 및 16공신 후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배 군수를 초헌관으로 춘계대제 거행을 가졌다.

승의전은 사적 제223호로 고려때 왕의 궁궐과 현종, 문종, 원종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조선태조 6년에 왕건의 묘를 세운 이래 세종과 문종

때 중건된 곳으로 당초 정전, 배신청, 전사청, 남문, 협문, 꽃간, 수복사 등으로 돼 있었으나 모두 소실돼 터만 남아 있다가 지난 1972년부터 승의전, 배신청, 전사청 등이 차례로 복원됐다.

이곳은 문종 때 승의전이라 이름 짓고 고려조 4왕의 위패를 모신 고려 16공신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고려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암암사에서 창건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묘전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성폭력예방 인형극 “우리 몸은 소중한요. 우리가 지켜요”

동두천시성폭력상담소(소장 박성애)는 올해 4회째로 성폭력예방 인형극 “우리 몸은 소중한요. 우리가

지켜요” 인형극을 4월24일에 2회에 걸쳐 동두천시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공연

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을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인형극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도 배가되고 있다.

공연에 참여한 96개 보육시설은 사전에 동두천시성폭력상담소에 공연관람신청해서 어린이집 아동 1,000여명이 관람했다.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 공연은 앞으로 자라는 미래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사회교육의 효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